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다함께
◆ 경배의 찬송	11. 거룩한 주님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2월의 마지막 날 아침 주님을 우러러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가슴 벅찬 생명의 숨결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화사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의 경쾌한 발걸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땅을 걷게 해주십시오.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을 경축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힘을 주십시오. 다른 이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헤아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누지 않음이 곧 불의임을 알아, 할 수 있는 한 이웃과 더불어 많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맘껏 노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
◆ 교 독 문	1. 시편 1 편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최인환 선생 II. 한완식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25. 주 예수 대문 밖에
성경봉독	I. 마 4:1-11
	II. 벨후3:8-13
찬 양	장재영 집사
말 씬	I. 다운 사람
	II. 신앙의 독립군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마십시오. 사용되지 않은 채 병 속에 남아 있는 소금도 되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 생명의 맛을 더해주는 멋진 이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곁에 다가서는 일임을 이제는 압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이 헛된 것이 아님을 못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전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1회 신앙강좌	로마서 강해(70)
이윤구 박사(대한적십자사 총재)	기도 : 곽권희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곽 권희 집사 이용한 장로	인도자 최숙화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정길	백승민	유영남	최영혜	권미정
	헌금위원	김철수	박창운	김용진	임창선	곽해자	김성자

내 영혼의 큰 바위 얼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이 전부 좋아지듯이 산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나무나 풀, 혹은 바위를 갖는 것도 좋다. 만약 당신이 톨스토이를 좋아한다면 그가 쓴 책들, 그리고 그의 집이 있던 마을, 야스나야 뿔라나에 대해 절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주 가게 되고 그에 관한 이야기에는 절로 발길이 멈춰진다. 귀 기울여 듣고, 눈여겨보게 된다. 그렇게 절로 그의 ‘통’이 돼 간다.

별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여러 날 바라다 보고 있으면 거기서 절로 이끌리는 별과 그 정도는 아닌 별로 구별이 생긴다. 내 영혼이 온 별은 어느 것이냐고, 또 내 영혼이 돌아갈 별은 어느 것이냐고 진지하게 몇 밤을 투자하여 자기별을 찾는다면 마음에 이끌리는 힘이 일어나며 그 별을 찾게 된다.

—야마오 산세이, <<여기에 사는 즐거움>>에서

산에 가 보면 절로 자기 마음을 끌어당기는 나무나 풀, 혹은 바위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당신의 나무나 풀 혹은 바위로 삼으라. 물론 소유 관계가 아니다. ‘이름표’를 붙여도 안 되고 무슨 표시를 해도 안 된다.

이데구치라는 일본인이 있다. 그는 일본 여행 중인 나를 어느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떤 크고 잘 생긴 나무를 소개하며 말했다. “내 마음의 나무다. 힘들 때 보러 오면 어떤 형태로든 이 나무는 내게 힘을 준다. 꼭 여기 오지 않고 이 나무를 생각만 해도, 연인 사이가 그런 것처럼 나는 힘이 난다.”

그의 말씀에 동의한다. 사실이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난다. 이렇게 언제나 서로 의지가 되고, 또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산에 있다면 참 신나는 일이 아닌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에 보면 “머잖아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자라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갈 것이다”라는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어니스트라는 이름의 소년이 나온다. 큰 바위 얼굴은 ‘생김생김이 숭고하고 웅장하면서도 표정이 다정스러워 마치 그가 지닌 사랑이 온 인류를 포용하고도 남을 것 같은 얼굴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없었다. 선생님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었다. 어니스트는 하루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는 게 일이었다.

그 무렵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는 아주 큰 부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했지만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주름살이 많이 잡힌 영악하고 탐욕에 가득 찬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보인 행동에서도 큰 바위 얼굴처럼 보는 이를 한없이 편안하게 만드는 인자함이나 후덕함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장군이었다. 그 다음에는 유명한 정치가였고, 그 다음은 명성을 얻은 시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도 큰 바위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한없는 사랑의 표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는 소년 어니스트가 예언 속의 그 인물이 되는데, 이유가 있다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늘 그 모습처럼 살기를 소망했다는 것이다. 그 소망 하나가 큰 바위 얼굴처럼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 되도록 어니스트를 이끌었던 셈이다.

<<큰 바위 얼굴>>이 전하는 이 메시지처럼 나무나 풀, 혹은 바위는 우리가 닮기를 소원해도 좋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가장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다, 욕심을 버려라, 성내지 말라, 이미 충분한 줄 알아라, 남 탓을 하지 말라, 감사하며 살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웃을 섬겨라... 이런 말을 우리는 삶의 원칙으로 읽고 듣는데, 실은 나무와 풀과 바위가 말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최성현, <<바보 이반의 산 이야기>> 중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작은 얼굴을 선호합니다. 영화나 방송 매체가 그들의 가치관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이 큰 사람을 보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놀려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을 떠올리면서, 크고 깊고 고요하고 넉넉한 정신을 그리워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는답니다. 심연을 바라보는 이의 눈은 심연을 닮고, 어지러운 세상을 골똘히 바라보는 이의 눈은 어지럽게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분을 닮게 될 것입니다.(기)

▣ 마/음/으/조/읽/는/글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진정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스스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네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지력이 있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는 이미 그 목소리의 존재를 알고 있고, 종종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고 나면 곧 회의를 품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따를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며, 공연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되면 끝도 없이 모순된 생각과 감정, 의견에 휩싸여 네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흘러들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헨리 뉴엔,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중에서

꿈을 품고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한완식 임정자 조관행 홍선희 홍순구 안홍숙 박규석
 박경선 노정숙 박영숙 배삼순 박시내 박정숙 임승동 백혜숙 임고운
 한인철 조윤숙 김용원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유증희 이재문 윤성종 김윤정 임 영

감사헌금:

박옥식 이재문 김정길 최숙화 백혜숙 문복순 장재영 김재영 김옥혜
 우승수 정종삼 하재두 김흥기 이소순 이계선 윤성종 장성호 박병규
 박병선 박옥순 박정숙 무명

생일감사헌금:

임보람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조 순 덕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김 명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박 현 우	
가버나움	구 성 실	안 홍 숙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2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금년도 첫 번째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주제 - 민족화해의 십자가
강사 - 이윤구 박사(대한적십자사 총재)
3. **사순절** : 사순절 달력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 삶의 습성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욕망을 절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저금통을 마련하십시오.
4. **문화부 회의** :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5. **성경학당** : 3월 9일부터 12주 동안 계속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표준 설교집'을 함께 읽어가는 이번 모임은 감리교인이 믿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전반 - 화요일 10시 30분
저녁반 - 화요일 7시 30분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시고, 교재비는 20,000원입니다.
6. **봉사활동** :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실 분들을 모십니다.
3월 3일(수) 오전 11시 20분 종묘 급식봉사
3월 5일(금) 오후 12시 30분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
7. **연합속회** : 3월 5일(금)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베들레헴 식사준비 - 다메섹
8. **유치부실** : 유치부실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6,7세 아동들을 유치부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치부실을 깨끗이 사용해주세요.
9. **유아부** : 4, 5세 아동들은 유아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0. **신앙실천** : 몸과 마음을 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에 20분 이상 만나도록 애쓰십시오.

*헌화 - 김인걸 문영혜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